제 6 강 현대 윤리학의 과제와 의무주의 : 정언명령과 자유 - 칸트 윤리학의 현대적 이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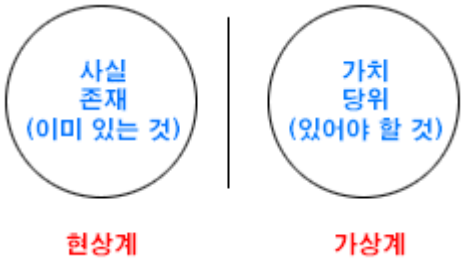
◈칸트 윤리학의 핵심 내용◈

(1) 동기에 대한 강조 : 의무 윤리학

1) 도덕은 내면의 문제이다 (행위에 대한 평가는 내면적인 의도나 동기에 의한 것)
 - 많은 근세 철학자 : 경험주의에 기반하여 행태주의적 접근
  ⇒ 행위만이 온전히 실재하는 것이지 내면적인 것은 무의미하다.
  ⇒ 내면적인 것도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.
  ⇒ 시민 사회의 공공성, 공지성에 대한 요청에서 생김

2) 무엇이 도덕적인가 (도덕적 선함 = 의무감에 의해 동기화 된 것)
  - 선의지에 의해 행위하는 인간
  - 행위의 동기가 전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자기이익으로부터 분리된 인간
  - 의무 그 자체를 위해 행위하는 인간
  -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vs.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
  예>자선 행위 :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자 한 자선 vs. 의무로서 한 자선
  - 도덕적 가치를 갖는 행위는, 도덕적 의무감이 자연적 경향성과의 갈등을 이겨내서 그로부터 행해진 행위
  ⇒ 훔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물리치고 훔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.
  - 문제점 :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훔치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가?
  ⇒ 도덕적 성숙 개념을 포괄 못함
  ※ 도덕적 성숙 :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유혹조차 느끼지 않으며 옳은 행위를 할 정도로 도덕성이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를 하는 상태. '덕의 윤리'의 목표.

* 칸트가 주장하는, 두 세계의 엄격한 구분



⇒ 인간의 야누스적 본성. '비사교적 사교성', 혹은 '비사회적 사회성'을 지닌 인간.

(2) 무엇이 의무인가? : 형식주의적 접근

1) 도덕 법칙의 성격 : 무조건적 정언 명령
  -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 구분
  - 가언 명령에는 경험적 요소, 결과에 대한 고려가 개입 : 보편성, 필연성 부재

2) 정언 명령의 세 가지 표현 형태
  i) 보편화 가능성 : 도덕 법칙의 형식적 측면
  ⇒ 어떤 규칙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.
   - 인간은 도덕적으로 될 수 있는 존재 = 보편적인 존재
   - "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 하라."
   - 보편화 가능성이 도덕성의 1 차적 기준 : 사적 특수성의 관점을 넘어서는 보편적 초월적 자아의 관점
   - 인식론 :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. 인간 정신의 구조인 직관형식과 범주가 유한한 세계의 토대이지만

인간은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.
- 윤리학 : 유한을 넘어설 수 없는가? → 도덕성에 의해 유한을 극복할 길이 열릴 수 있다.

ii) **인간을 목적으로 대우**하고,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는 말라 : 내용적 측면
⇒ 어떤 규칙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서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대하게 할 규칙이어야 한다.
- 이성적 존재자는 자기를 대하듯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대하여야 함.
-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않는 것이 중요 : 노예 vs. 의사
-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한정 (cf, 공리주의: '행복과 고통의 문제', '동물권'의 개념)

* 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?
- 가치 있는 것 :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가치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
- 사물들은 가치를 부여한 사람에 의해서 가치를 가짐
- 인간은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자신은 무조건적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.

iii) **목적의 왕국의 일원인 것처럼 행위 하라.** (자의에 의해 행동하라.)

(3) 어떻게 의무임을 아는가.
- **직각주의** ("이성의 사실")
- 하버마스의 비판, "모든 사람이 똑같은 직관을 할 수 없다."